



중국, 對일 농산물 수출기업 대상 연수 실시

중국의 상무부와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 총국은 지난 3월 남경에서 일본의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상무부 담당자는 식품, 농산물의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연수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상무부와 국가 품질감독 검사 검역 총국의 전문가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영향, 중일 양국간의 농산물 무역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강소성의 대일 농산물 수출 구성과 결과에 대해서 원예, 수산, 해산물의 화학약품 잔류량의 기준치와 영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기업을 지도하였다.

현재까지 북경, 산둥, 복건, 절강, 요령, 안휘, 호북에서 연수가 시행되었고 1600여개 기

업에서 300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4월중에도 계속 연수회 활동을 실시할 예정인데 연수대상 기업을 대일 농산물 수출기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농업대국으로 농산물 수출은 농촌의 취업, 농민의 소득증가, 농업 생산구조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은 선진국에 집중하고 있다. 작년의 대일 농산물 수출은 79억3천만 달러로 농산물 수출의 전체 29%를 점유하고 있다. 대일 농산물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은 6200여개사가 있다.

일본에서 실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중국의 농산물 수출의 기술적 제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최근 수입국은 기술적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있고 미시적의 기술적인 것에서 거시적의 제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 농약시장, 3년 연속 증가

2005년의 세계 농약시장이 전년대비 1.5% 증가한 311억9천만달러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환율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한 실질 성장률은 2.5% 감소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미국에서의 농약 가격의 인상 외에 달러 약세

가 농산물 수출에 드라이브를 거는 등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브라질 남부나 아르헨티나 북부에서의 가뭄, 브라질 통화 해알화 상승의 영향으로 농작물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등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 지역특산물에 대한 농약관리법 특례 종료

일 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3월 14일 「지역적인 특산 농작물에 대해 특별히 인정된 농약사용의 경과조치가 2006년 7월말로 종료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지난 2002년의 농약관리법 개정은 「해당 작물에 대해서 적용대상 작물이 있는 농약 이외에는 사용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지역적 특산 농작물(마이너작물이라 함. 전국 생산량이 3만톤이하의 농작물을 지칭)에 대해서는 적용 등록이 되어있는 농약이 적어서 특별히 2005년 3월말까지 적용 등록된

이외의 농약 사용이 인정되었고, 그 후도 긴 급성, 필요성이 높은 작물 2,963건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연장시킨 바 있다.

또한 농림성은 경과조치 종료 후에도 △지역적 특산 농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추진 협의회에 의한 우선 등록 농작물의 선정 시험 실시의 조정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등록 확대시험에 대한 협조 △농작물의 그룹화로 농약 등록 가능하도록 방법 확대 등 지역적 특산 농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상해시, 오염된 밭 농산물 생산 금지

상 해시 농업위원회가 시민이 가장 관심이 높은 농작물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05년 조사에서 상해시내에는 7,000a의 오염된 논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외에도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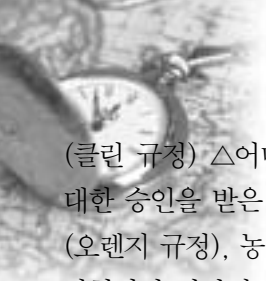
따라서 상해시에서는 농작물의 안전에 힘을 쏟고 2006년말까지 중금속에 오염된 논밭에서의 농작물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농작물 안전에 대한 인증제도를 더 확대시켜 경지면적이 작은 농가에 대해서도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국, 농약사용 규정 개정

영 국에서 식물보호제품 업자를 대상으로 한 농약사용규정 일부가 개정되었다. 이로써 이제까지는 자발적인 행동규범으로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적인 성격을 가

지게 되었다. 또한 농약관련 소송 등에서 증거로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행동규범을 보면 △농지 및 소작농지에 대한 농약의 안전사용에 관한 행동규범



(클린 규정) △어메니티 지역 및 산업지역에 대한 승인을 받은 농약사용에 관한 행동규범 (오렌지 규정), 농업청부업자 협회 및 영국농약협회의 자발적인 규정임. △비 농업목적의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행동규범의 일부, 임업을 대상으로 한 1999년 건강에 관한 유해물질의 관리규칙(블루 규정) 개정 후는 농약사용 살포기록을 기입한다 라는 법령상의 요구사항

에 대한 정보나 지하수 보호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적인 지문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살포기록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EU의 규칙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다. 인간 또는 가축의 식용작물을 생산하는 업자는 농약사용기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업자들도 기록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록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美소비자단체, GM작물 철회 위한 농무성 소송

미 국의 농가나 소비자 및 환경보호단체 등 관련단체가 최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GM) 알파파를 인가한 농무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농무성은 2005년 여름, 몬산토가 개발한 농약에 강한 GM알파파종의 판매를 인가하였다. 원고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체, 환경, 경제적 영향의 사전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적절하게 인가되었다」고 주장하고 포괄적인 환경

영향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인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단은 「몬산토는 환경에 미지의 위해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GM 알파파는 종래의 종을 급속히 몰아낼 우려가 많고, 농가는 호불호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몬산토의 유전자 기술 특허의 지불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알파파는 주요한 가축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농품이나 고기소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中운남성 중소기업, 메콩강 유역국가와 경제관계 강화

중 국 운남성 생태농업연구소는 곤명고신기술개발구(하이테크 파크)내의 민간기업이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각국과 행해지고 있는 무역은 매년 100만원(중국화폐)이상에 이른다. 동사가 개발한 생약을 원료로 한 농약은 병해충을 방제하는 효과가 높아서 타이, 미얀마 등의 농가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지역에 인접한 운남성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메콩강 유역국가(미얀마,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와 경제적으로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메콩강 유역국가와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수는 1500개사에 이른다. Y